

## 최근 중국 물가상승과 가격통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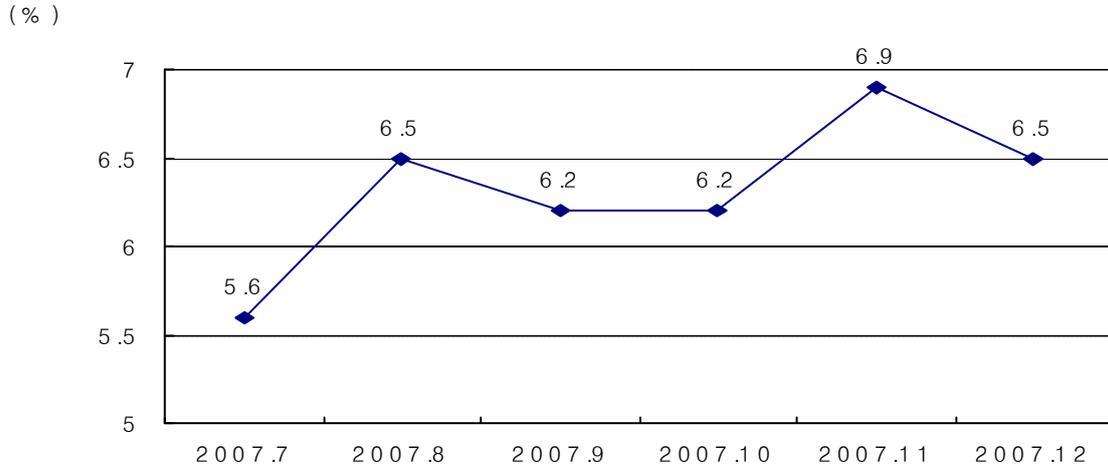
### 1. 개요

-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주요 식료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조치를 실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는 《일부 중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 가격통제 조치에 관한 실시 방법(关于对部分重要商品及服务实行临时价格干预措施的实施办法)》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임시 가격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2008.1.15).
- 이는 1993년 가격자유화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가격통제 조치”라고 평가됨 (《北京晨报》, “干预政策15年来罕见”, 2008.01.17).

### 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

- 2007년 5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8월 이후는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임.
- 2007년 11월 CPI 상승률은 6.9%에 달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2007년 연평균 CPI 상승률은 4.8%로 2006년(1.5%)과 비교했을 때 무려 3.3% 포인트나 상승

<그림 1> 2007년 하반기 중국 CPI 상승률



□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요 식품류 가격 상승에서 기인

- 이번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돼지고기<sup>1)</sup> 등 식품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 2007년 이후 식용유와 돼지고기 가격은 이미 배가 넘게 올랐으며, 북경시의 경우 2007년 11월 식품가격은 17.8% 상승하였으나, 비(非)식품가격 상승률은 0.2%에 그침.
- 2008년 1월 상순, 중국 36개 도시의 콩기름,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58%, 43%, 46%, 51% 상승하였음.
- 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6일까지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상승<sup>2)</sup>
- 최근 남부지방의 폭설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의 가격 폭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sup>3)</sup>

1) 중신증권(中信証券) 연구부의 애널리스트 주지엔팡(褚建芳)은 이번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 2004년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 → 대체연료로서 에틸알콜에 대한 수요 급증 → 옥수수에 대한 수요 급증 → 국제 옥수수가격의 상승 → 사료 가격의 상승 → 양돈(養豚)사업 유지 비용의 증가 → 양돈사업을 포기하는 농민 출현 → 돼지고기 공급 감소 → 2007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남

2) 1월 16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5일에 비해 15% 상승

3)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천시원(陳錫文) 부주임은 일부 지역의 채소가격은 4배 이상 올랐다고 발표

- 최근에는 식료품 뿐만 아니라 맥주 등 주류와 화장품, 약품 등에서도 가격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sup>4)</sup>

□ 투기적인 행위에 의한 물가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물가상승 추세에 편승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기업이 결탁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고의로 가격 상승의 헛소문을 퍼트리는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또한 일부 기업은 매점매석, 투기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 이러한 물가상승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큰 타격을 줌.

- 2007년 11월 10일 충칭(重慶)에 위치한 한 까르푸 지점에서는 특가 식용유를 구매하기 위해 모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상을 입기도 함(《中国经济网》, “重庆家乐福事件因抢购菜油引起 11元夺走3命”, 2007.11.17).

- 물가상승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패턴을 고려할 경우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고소득 상류층보다 농촌 주민 및 도시 서민 생활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국정부의 대응

□ 중국정부는 물가 안정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2008년 1월 9일부터 14일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

-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당분간 자동차용 휘발유와 가스, 난방 및 주방용 가스, 대중교통, 학비, 주거비, 전력 등 공공요금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1.9)

---

4) 마오타이주(茅台酒)의 판매가격이 이미 10% 이상 상승하였으며, 맥주도 약 30%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국무원에서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을 수정, 발표(1.13)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중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가격통제 조치에 관한 실시 방법 (关于对部分重要商品及服务实行临时价格干预措施的实施办法)》(이하 가격통제)을 발표(1.15)

□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존의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을 수정하여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새로 수정된 규정에서는 담합과 가격조작, 덤핑, 가격차별 등 시장가격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 3만~30만 위안에서 10만~100만 위안으로 크게 확대

□ 임시 가격통제 실시

- 가격통제의 범위는 주요 양식(쌀, 밀가루 등)과 식용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및 우유, 계란, LPG 등 주요 생필품
- 가격통제의 주요 조치는 “가격상승에 대한 사전 신고제(提价申报)”와 “가격 상승에 대한 문서화(提价备案)” 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표 1> 임시 가격통제의 주요 조치

조치	주요 내용
가격상승에 대한 사전 신고제 (提价申报)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기업)는 상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전에 관할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만약 가격 상승 이유가 불충분하다거나 가격 상승 폭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할 기관은 영업일 기준 7일 내로 기업에 관련 의견을 통보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가격상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인스턴트 라면, 식용유, 유제품 등 과점시장의 경우, 주요 생산자(기업)는 발전개혁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야 함.
가격상승에 대한 문서화 (提价备案)	일정 규모 이상의 도소매 판매업자는 가격 상승을 문서화해서 남겨둬야 함. 가격 상승이 한번에 4% 이상이거나, 누적 상승폭이 10일 내 6% 이상, 30일 내 10% 이상일 경우, 가격 조정 후 24시간 내에 정부 관할 기관에 가격조정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해야 함. 가격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관할 기관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가격통제의 목적은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억제

- 발전개혁위원회 가격시(司) 저우왕쥘(周望军) 부사장은 이번 임시 가격통제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고의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며,
-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만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
-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이번 가격통제가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
- 정부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상승에 대해서만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격 동결이 아니며, 기업의 가격 책정에 대한 재량권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
- 또한 이번 임시 가격통제는 말 그대로 임시 조치일 뿐이며, 물가상승 추세가 완만해질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 4. 향후 전망

- 이번 가격통제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풀이 됨.
- 중국 정부의 가격통제가 지난 1993년 가격자유화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이번 가격통제는 2007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제시되었던 “두 방지(双防)” 즉 ‘경제성장 과열에 대한 방지’와 ‘통화팽창에 대한 방지’ 방침과 일맥상통

□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 이번 가격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물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남부지방 폭설 그리고 신노동법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가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 추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新华网》, “春节物价涨幅达7%, 08年上半年涨价压力大”, 2008. 1. 5
- 《中国经营报》, “这是一次最揪心的涨价”, 2008. 1. 7
- 《中国经营报》, “要素价格重估: 温和而持续的通货膨胀”, 2008. 1. 7
- 《新华网》, “中科院: 2008年我国消费价格指数将控制在4.4%”, 2008. 1.11
- 《21世纪经济报道》, “国家发改委启动临时机构干预措施”, 2008. 1.17
- 《CCTV》, “稳定物价惠民生: 临时价格干预实施 涨价须申报”, 2008. 1.17
- 《华夏时报》, “防止节前突出涨价 政府‘物价干预’接连加码”, 2008. 1.18
- 《中国经济网》, “重庆家乐福事件因抢购菜油引起 11元夺走3命”, 2007. 11.17
- 《北京晨报》, “干预政策15年来罕见”, 2008. 1.17

(자료 정리: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박사과정 이은경)